

2025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심의결과

- 음악 -

□ 심의일정

[1차] 행정심의 지원신청 부적격자 등 행정심의 결정사유 검토 ~ 2024.11.08.	▶	심의위원 사전 워크숍 심의방식 및 의무사항 등 안내 2024.11.20.	▶	[2차] 전문가 서류 및 토론심의 심의지표에 따른 심의위원 서류검토 및 토론심의 진행 후 개별차점 2024.11.21. ~ 12.26.	▶	[3차] 전문가 지원금 의결심의 사업 규모에 따른 예산검토 및 지원금 의결 2024.12.05. ~ 12.31.
--	---	--	---	---	---	--

□ 심의위원회 명단

※가나다순

장르	심의 분야	심의위원
음악	기악	문진택(꿈의오케스트라 성북 음악감독), 성기선(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보연(바이올리니스트, 아티스트 소사이어티 더 노마즈 대표), 임기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담심의관(음악분야)), 임수연(일신문화재단 본부장)
	성악	김상균(공주시충남교향악단 운영실장), 오미선(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이경재(오페라연출가, 프리랜서(전 서울시오페라단장)), 이지영(클럽발코니 편집장,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최승원(미국 오이코스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작곡발표, 기타 음악발표	강은구(창작집단 MoR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김학선(대중음악평론가), 김희정(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뉴미디어작곡 전공 교수), 손해민(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예술경영)), 황덕희(재즈 칼럼니스트,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 진행자)

□ 세부 선정결과

※ 지원결정액은 창작지원금과 활동비(정액 3,000천원) 및 회계검증수수료를 포함한 결정액임.

○ A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1123	강동엽	보웬 비올라 전곡 연주 시리즈 I - The English Rachmaninoff	7,000,000
2	202501195	국제교류현대음악협회 (INO)	INO 5th concert, "Duty, Free"	15,000,000
3	202504138	권깃비	borrowed body · 빌린 신체	12,000,000
4	202503946	김미나	<미나노스테이션 - 첫 번째: 추추!(choo choo)>	16,000,000
5	202504744	김서현	김서현 바이올린 리사이틀 <Poème>	19,000,000
6	202501909	김원미	노래는 피콜로에게 심장을 주었다! 그리고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19,000,000
7	202501063	김정민	Lacrimae, 류트 일곱 줄의 눈물: 고음악의 아름다움	12,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8	202504973	김진주	Echo of the City	16,000,000
9	202505855	김형순	소프라노 김형순이 전하는 모차르트의 안부 : GrüÙe von Mozart!	14,000,000
10	202500511	남윤지	La 1ere revolution(첫번째 변화)	11,000,000
11	202505609	라츠	버츄얼 아바타와 함께하는 판타지오페라 <안녕, 나의 별님에게>	25,000,000
12	202504245	박다영	차원의 노래	16,000,000
13	202506334	박세종	가무극 <이상(李箱)한 놀음>	17,000,000
14	202506039	박연민	박연민 리스트 <순례의 해> 전곡 리사이틀	22,000,000
15	202500972	박준선	나의 음악사전 [제 3장]	15,000,000
16	202506009	배가영	운명을 노래하다: 라틴의 리듬과 국악의 인연 (부제: 망고리타, 회자정리거자필반의 여정을 따라)	16,000,000
17	202504700	아레테 콰르텟	아레테 콰르텟 음반발매기념 리사이틀	20,000,000
18	202500216	엄시현	멸종 위기 동물을 주제로 한 실내악 및 멀티미디어 탐구	16,000,000
19	202502896	영아츠컴퍼니	오페라 <정간보> 쇼케이스	25,000,000
20	202505838	유성호	유성호 피아노 독주회	10,000,000
21	202500494	윤연준	Études, &	16,000,000
22	202501761	이디오마델라무지카 양상블	4인 4색, 희로애락	18,000,000
23	202501010	이진현	이진현 피아노 독주회	7,000,000
24	202501769	일상의클래식	어린이 관현악 음악극 <에코와 멜로디의 애니멀 심포니>	20,000,000
25	202505602	임희주	괄호로 묶인 (곳)	15,000,000
26	202505297	장희원	현대오페라 오르페오	25,000,000
27	202503769	정단비	“지원서” - 현대음악극	14,000,000
28	202502742	정민규	이계(二季): 사라진 계절의 시간	13,000,000
29	202502329	정지수	정지수의 시선 III with Big Chamber Orchestra	14,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30	202504968	조시은	Asian Spice House <메아리 친다; Beyond Echoes of Tides> 앨범 및 공연 제작	16,000,000
31	202506237	중력장	건축무한미분음계	16,000,000
32	202502903	하유나	하유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Timeless Dialogues>	22,000,000
33	202501689	황건영	황건영 피아노 독주회 <낮은곳으로 임하소서>	10,000,000
34	202500909	황요한	음악과 수학, 그 경계를 넘어 : 소수(Prime number)의 하모니	14,000,000

○ B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3281	MdHK(모두함께)	215회 R. Schumann 생일에 KdHk	20,000,000
2	202503184	골든뮤직엔터테인먼트	창작 어린이 오페라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 루카의 모험]	35,000,000
3	202503139	공간소리	제5회 소리로 잇다 - 서울에서 듣는 전통의 재구성	24,000,000
4	202505763	김영후	김영후 빅밴드 - 인공지능 혁명으로 야기될 갈림길, 그리고 역사적 내러티브	24,000,000
5	202502048	김이슬	두개의소리 이방인	20,000,000
6	202504819	김하임	House of Ambient (가제)	20,000,000
7	202505340	김효종	테너 김효종 독창회 <Schubert>	20,000,000
8	202503085	류승현	서울엔 아직 산이 많다	15,000,000
9	202504458	문지승	Kontakte	22,000,000
10	202502824	박다미	에릭 사티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극 - "Je te veux : 벨 에포크의 음악적 서사"	26,000,000
11	202501792	박정은	<모두가 똑같고 모두가 고립된 세상에서>	24,000,000
12	202506249	박종성	Harmonica Rapsody	25,000,000
13	202504343	박현	박현 바이올린 독주회, "아메리칸 리리시즘(American Lyricism)"	9,000,000
14	202501880	배익한 재즈 오케스트라	재즈민요	19,000,000
15	202502181	사단법인 발트	2025년 발트양상블 10주년 공연	31,000,000
16	202505411	서울모던양상블	Sound Bridge4: 시대와 문화를 잇는 올림	18,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7	202505976	서울솔리스트첼로 양상블	서울솔리스트첼로양상블 제30회 정기연주회 기념 [사계 프로젝트]	22,000,000
18	202506017	석다연	썬믹 (SS:umic) 페스티벌 제 4,5,6회 : [Transmutation no.2025]	24,000,000
19	202504023	심정은	자연소 프로젝트 3-A <한국형 양상블을 위한 Concert-Lab : Concertino>	19,000,000
20	202506534	아보비태챔버 오케스트라	스토리 클래식 (바로크에서 현대까지)	25,000,000
21	202502621	아야프양상블	AYAF Collaboration op.9-1 영화, 현대음악을 만나다.<THE CIRCUS>	19,000,000
22	202501996	아우어 퍼쿠션	Percussive Series - 프랑스 신고전주의	20,000,000
23	202504202	아트팜엘케이 (ArtFarmLK)	대편성 창작 오라토리오 마르티레스	24,000,000
24	202502061	양상블블랭크	작곡가는 살아있다 IV	22,000,000
25	202501140	양상블자비에	양상블 자비에 정기연주회 "Heritage"	12,000,000
26	202505420	위로 양상블 (wiro ensemble)	Sound Maker Project IV 아보하	18,000,000
27	202501584	위솔로이스츠	위 솔로이스츠 Master Piece Series 2025 VII. 도심 속 물결, 눈길, 산보에서 모차르트의 선율을 듣다. VIII. 孤獨(고독)	30,000,000
28	202504798	음악오늘	음악오늘 스무 번째 이야기 / '소리 퍼커션'의 <장長.단短.>	18,000,000
29	202503413	이 솔리스띠	팔레스트리나 탄생 500주년 기념 이 솔리스띠 제14회 정기 연주회 'Missa Papae Marcelli'	30,000,000
30	202501369	이윤의	이윤의 바이올린 독주회	9,000,000
31	202505834	이윤정	에올리아 양상블 제 2회 정기연주회	17,000,000
32	202501703	이지윤	이지윤 & 문지영 듀오 리사이틀	13,000,000
33	202505611	전민재	전민재 피아노 작품 시리즈 <헌정 for 스페셜>	24,000,000
34	202503943	전현석	전현석 작품발표회 - 실험음악극 The Last Question	22,000,000
35	202500045	정미선	합창과 실내오케stras를 위한 Hoer! unser Lied!	14,000,000
36	202505024	조성현	플루티스트 조성현 X 바수니스트 유성권: 목관의 대화	13,000,000
37	202505169	조예본	Stitching	24,000,000
38	202505656	주준영	반지하 오디오로그 - "나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3,000,000
39	202504775	진유영	타악기 음악극, 마우리치오 카겔의 <Dressur>	20,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40	202505193	최인	최인 기타 리사이틀 Musicscape - 그림자의 경계에서...	15,000,000
41	202504961	최정수타이니오케스터 (JungsuChoi)	JTO plays John Coltrane	19,000,000
42	202505446	코리안바로크소사이어티	찬란한 삶, 메타스타시오	35,000,000
43	202504056	파주헤이리챔버오케스트라	바흐의 메아리	25,000,000
44	202502323	팬토닉	음악전시 <토탈 카운터포인트>	24,000,000
45	202501707	프로젝트21앤드	프로젝트21앤드 신스(project21AND Synth)	20,000,000
46	202504605	피케이뮤직(PKmusic)	제 7회 어텀실내악페스티벌	35,000,000
47	202501912	하랑씨어터	현대음악 퍼포먼스 콘서트 <맥베스:소리의 심리학>	23,000,000
48	202506299	허대욱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24,000,000
49	202504621	허효정	허효정의 인문학리사이틀 VI. 음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12,000,000

○ C트랙

※ 가나다순 / 단위 : 원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	202501146	강효지	숨 - BREATH	21,000,000
2	202502850	노부스 콰르텟	노부스 콰르텟 브람스 현악사중주 전곡연주	28,000,000
3	202501836	바흐솔리스텐서울	바흐솔리스텐서울 창단20주년 기념음악회시리즈	45,000,000
4	202505826	사단법인 세종솔로이스츠	세종솔로이스츠 실내악 시리즈	30,000,000
5	202501972	사단법인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창단 60주년 기념 특별 연주회	30,000,000
6	202500635	신나라	음악극 공무도하	29,000,000
7	202505599	여음목관5중주	여음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12,000,000
8	202501735	유재준	부부이야기	32,000,000
9	202502098	지박컨템포러리	음악전시 blur - Flux Tempo	28,000,000
10	202500599	카로스타악기앙상블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36주년 정기연주회 "세계를 흔들어라 카로스 II"	42,000,000
11	202501390	카메라타안티콰서울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28,000,000
12	202505439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Bloom Where You Are Planted: 고난에 대한 작곡가들의 자세	19,000,000
13	202500550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의 헨델 메시아	45,000,000

연번	관리번호	성함(단체명)	사업명	지원결정액
14	202502899	한국여성작곡가회	서사에서 선율로: 한국 단편소설의 음악적 재탄생	29,000,000
15	202502015	(사)한국음악협회	제57회 서울음악제	29,000,000
16	202501543	(사)한국페스티벌앙상블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사)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제79회, 제80회 정기연주회)	27,000,000
17	202502117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제17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32,000,000

□ 심의총평

□ 기악

○ A트랙

A트랙 지원자들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하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획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신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지원자들의 기획이 참신하고 색다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 예술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신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예술적 발전이나 차별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서류 작성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급하게 작성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단체에 소속된 상태에서 개인이나 일부 팀으로 신청하여 차별성과 고유성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많아 스스로의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이 더욱 개성 있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향후 활동의 큰 흐름을 예상하며 준비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앞으로의 예술계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질 것입니다. 우리 음악계가 여전히 좋은 음악가들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 B트랙

B트랙은 다양한 예술단체와 개인이 참여하여 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정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B트랙에 해당하는 연주자들이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합니다. 지원자들은 독주회, 앙상블, 협연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연주자들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지원신청 예술인(단체)의 수준이 높고 기획안의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험적이고 전통적인 기획이 혼재되어 예술계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예술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원자 대부분이 독주자, 앙상블 멤버, 협연자로 활동하며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계획, 천편일률적인 기획안, 높은 대행사 비용 책정 등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작품 창작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우선한 대행사 비용의 획일적 편성은 공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B트랙은 안정적이지만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에 보다 많은 집중이 필요하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활동에 적응하는 부분에 있어 깊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B트랙 예술인(단체)들이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C트랙

중견 이상의 예술가들은 숙련된 아이디어와 모험적인 기획을 통해 예술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성숙한 기획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지원자들은 예술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 그들의 업적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트랙에 비해 숙련된 아이디어도 많았고, 모험적인 기획도 많이 보였습니다. 숙련됨에 만족해하기보다는 그 원숙함을 가지고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기획이 좋았습니다. 또한, 지원자들은 사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성숙한 기획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으로 심사 과정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원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불필요하게 높은 예산 편성으로 지나치게 과장된 공연 계획을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연 예술가는 공연으로 많은 것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영상 자료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지원신청서 내 꼼꼼하게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C트랙에서 우리나라 공연계의 방향성과 예술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좋은 기획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예술계가 더욱 풍요롭고 다양해지기를 바랍니다.

☐ 성악

○ A트랙

A트랙은 젊은 예술가들이 주도하는 창작 오페라 및 가곡의 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지원신청서에는 AI, 기후변화와 같은 현대적 주제를 반영한 작품들이 많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계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심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술단체들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팀들이 기존 공연계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무대 구성의 변화로 관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상, 조명, 자막 등을 활용하여 관객의 시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려는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예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관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지원서의 내용은 설득력이 부족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었고, 자료 조사의 빈약함과 경력 소개의 누락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예술단체들이 더욱 철저한 준비와 고민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술의 깊은 고찰과 함께, 예술인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예술계의 미래가 더욱 밝고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B트랙

B트랙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 기획과 창작 의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예술적 메시지를 담으려는 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창작활동의 목표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의 공연이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될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원서 작성에

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라는 구조가 잘 드러난 경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예술가들의 창의적이고 진정성 있는 기획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B트랙 지원자들의 열정과 시도가 돋보였으며, 신청자 군이 다양한 장르에 걸쳐있었습니다. 개인 독창회, 성악 앙상블, 오페라 개작, 합창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이 많았으며 특히 해설, 자막, 영상 등을 활용해 관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B트랙 예술인(단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지원서에 잘 드러나 그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지원에서는 기획의 독창성이 부족하거나, 지원사업 서류를 위해 억지로 만든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B트랙이 중견 예술가들의 창작 의지를 북돋우고, 지속 가능하고 탄탄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C트랙

C트랙은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지원하여 목적과 대상에 적합한 작품들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오페라와 합창 분야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바로크 음악과 같은 특정 장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예술의 전통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단체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변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여, 예술의 본질적 수월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작품 발굴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단체들이 존재하여, 예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며, 관객에게 더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기획안이 미흡하여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 이력이 많은 팀에서 자료 미흡이 발견되었고, 프로그램의 의도나 구성력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크 음악이 유행처럼 여겨지는 점과 기존 작품을 재연하는 형식의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예술단체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더 나은 기획과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술단체들은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창작오페라와 같은 분야에서 성악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양한 장르와 형식을 시도하여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예술계는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작곡발표, 기타 음악발표

○ A트랙

A트랙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반영한 주제를 선택하여 예술적 표현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 고립, 소외, 그리고 환경 문제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의 발전과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음악과 소리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창작 시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예술과 과학, 인공지능 등과의 협업을 통해 경계를 넘어서는 프로젝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접근은 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직관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밝힌 아티스트들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는 새로운 음악에 대한 시도와 장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자 각자의 트랙 선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작품 해설로 계획을 대

체한 경우, 예산 사용 계획이 부족한 점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심의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술적 책임을 바탕으로 예술적 완성을 위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주제들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술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세계를 알고 고자 도전하고 노력하는 예술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드립니다.

○ B트랙

이번 B트랙 심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열정입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며,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문학, 전통국악, 도시의 일상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원하여, 예술가들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로 확장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획안을 제시하며, 예술활동의 가치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는 독창성과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주를 단순 반복하는 형태의 공연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부족한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난해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관객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으며, 예술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관객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예술가(창작자)의 길은 항상 열려있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창작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지원한 모든 프로젝트들에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 C트랙

C트랙은 예술의 가치를 깊고 넓게 확장해 나아가려는 시도가 담긴 좋은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지원자들은 이미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하여 자신의 예술적 뿌리를 바탕으로 복합예술, 융합예술, 첨단예술로 확장해 나아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주를 동반한 лек처, 현대음악의 지속과 새로운 모색, 디지털(인공지능, 가상세계)을 활용한 창작곡 발표, 기후 위기, 인간의 소외와 상실, 역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기획의 참신함과 협력 아티스트의 높은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협업을 통한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선보였으며 이는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시도들도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기존 작업의 유형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A트랙과 B트랙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도전적 고민과 실험적 연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또한, 창작자 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이 결여된 프로젝트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예술적 성장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술적 목표가 분명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예술인들의 앞으로의 예술 활동을 응원합니다.